

증권 다이제스트

미래에셋대우

ELS 9종 1050억 규모 판매

미래에셋대우는 8일 연 5.0%에서 연 8.0%까지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구조의 지수형 ELS 7종과 해외주식형 글로벌 ELS 2종 등 총 9종을 약 105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아마존-넷플릭스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초고위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월수익지급 평가일 기초자산의 증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매월 1.0%(총 6회,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만기일에 원금 100%를 지급한다.

'아마존-엔비디아 손실제한 조기상환형 해외주식 글로벌 ELS(중위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102% 이상이면 연 11.30%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토스 해외주식 행복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토스(TOSS) 해외주식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토스 앱을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스타벅스, 애플, 알파벳(구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의 주식을 추천으로 제공한다.

또한 5월 17일 부터 5월 24일까지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고객 선착순 333명에게 5달러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는 업계 최초로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의 토스 앱을 이용해서 미국 유망 주식 20종목을 환전 등의 별도 절차없이 바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연 6.3% ELS 등 10종 공모

KB증권은 11일 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 HSCEI, S&P500)으로 연 6.3%(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518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8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514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탭다운형)는 S&P500지수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타크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4%(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오너가 지배' GS건설 지주사 편입 '과제'

2018 기업 지배구조 개편

⑥ GS

집단경영체제로 승계작업은 아직 지주사 체제 속한 계열사 58%뿐 GS칼텍스 정유 의존도 높아 고민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허창수 GS그룹 회장 신년사) 그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18년은 세계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를 내리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이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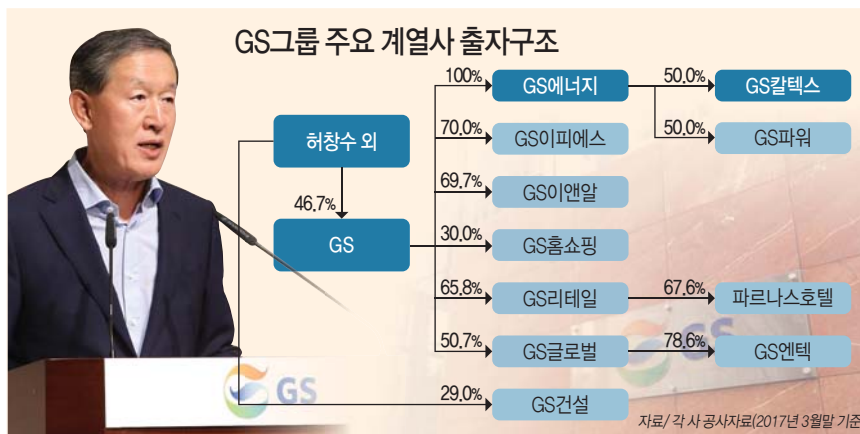
GS는 계열사 경영진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와 2차전지 소재 등 혁신 사업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유통과 건설을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큰 잡음은 없다.

◆GS, 집단 경영체제 2006년 LG그룹에서 분가한 GS. 1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GS그룹은 집단 경영체제 방식을 갖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GS그룹과 그 아래 허남각 회장의 삼양통상, 허용수 회장의 승산그룹 등이 GS그룹에 편입돼 있다. 이들 3개 그룹은 독립경영을 하면서도 GS그룹이란 큰 우산 아래 속해 있다.

허경수 회장이 지휘하는 코스모그룹은 GS에서 계열분리했다. 제계는 허 회장이 GS그룹 계열이라는 장점보다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계열분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모그룹을 제외한 GS그룹은 3명의 오너가 4세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 허



윤홍 GS건설 전무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이자 최대주주인 허준홍 GS칼텍스 전무가 주인공들이다. '홍'자 돌림 형제 중 가장 먼저 이사 직함을 단 허윤홍 전무는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의 장손이며, 허준홍 전무는 허만정-허정구-허남각으로 이어지는 GS그룹의 직계 장손이다.

허윤홍 상무는 0.53%(이하 2017년 사업 보고서 기준)의 GS 지분을 보유하는 등 자산 승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버지인 허창수 회장이 GS(4.75%), GS건설(11.02%)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갈길이 멀다. 오히려 허준홍 씨의 행보가 눈에 띈다. 그는 GS 보유지분을 1.86%까지 늘린 상태다. 또 최근 삼양통상 지분을 21.25%로 늘려 최대주주가 됐다.

GS그룹 오너가 4세 중 가장 먼저 경영전면에 나선 허세홍 GS글로벌 사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GS지분 1.43%를 보유하고 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장남인 허서홍 상무(GS에너지 전력·집단에너지 사업부부장)도 GS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GS 보유 지분을 1.24%까지 늘렸다.

오너리스크나 경영권 분쟁은 머나먼 일이라 게 재계의 평가다.

제계한 관계자는 "GS칼텍스 등 GS그룹의 실적이 탄탄해 경영이 안정돼 있

다"면서 "허 회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3세들의 경영능력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아 경영권 승계를 아직 논할 단계도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GS그룹의 전체 계열사는 69개. 이 가운데 지주사 체제에 속한 계열사는 40개로 58%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 평균치(73.3%)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지주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사 29곳 중 1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일정 수준(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는 규제 대상이다. 문제는 GS칼텍스와 거래량이 많은 GS아이티엔이나 GS네오텍 같은 계열사들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GS건설(GS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 GS건설은 GS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이지만 지주사 ㈜GS의 지배는 받지 않고 허창수 GS그룹 회장(10.78%), 허진수 GS칼텍스 회장(5.46%), 허정수 GS네오텍 회장(4.18%), 허명수 GS건설 부회장(3.41%),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2.13%) 등 허씨 일가가 지배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GS가 문제 해결을 위해 GS건설을 몰해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LG그룹도 그랬다. L

GS상사는 ㈜LG 지배 밖이었지만 지난해 말 구분무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을 사들이며 지주사의 품에 안겼다.

◆그룹 핵심은 GS칼텍스... 경영권 행사는 제한적

2004년 7월 LG의 인적분할로 GS홀딩스가 설립된다. LG그룹과의 분할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출범했다. 고(故) 허만정 회장 일가의 지분이 근간이었다.

이후 GS그룹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정유, 화학, 유통, 발전, 건설 및 레저업 등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GS칼텍스의 정유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허 회장의 고민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열린 '2018년 2분기 GS 임원모임'에서 "임원들이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이면을 읽어내는 안목을 키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허 회장은 "새로운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GS그룹은 출범 때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투명한 지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윤리경영'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실천해 오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 활동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보완할 점이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엑스레이 장비 전문... 매출 70% 해외서

IPO 기자간담회

제노레이, 이달 중 코스닥 상장
지속 수익창출·사업 안정성 확보

메디칼엑스레이(X-ray) 진단장비 전문기업 '제노레이'가 5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개발비 자산화가 흥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노레이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9일부터 수요예측을 거쳐 16~17일 청약을 실시하고 28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제노레이는 치료용·치과용 디지털 영상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제노레이는 메디칼 사업으로 수술 환경에서 사용되는 시암(C-arm)과 유방암 진단 시 활용되는 맘모그래피(Mammography) 두 장비의 생산과



박병욱 제노레이 대표이사.

/제노레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시암은 의사가 환자 몸 속을 실시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면서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외과 수술 시 영상을 토대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진료 및 수술시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온다.

2008년부터 본격 판매한 맘모그래피는 현재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엑스레이로 유방조직을 찍어 유방 내부구조를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나타내는 장비다.

제노레이의 강점은 메디칼과 더불어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덴탈 장비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영상장비는 영리가 우선시되는 분야로 가격 민감도가 높고,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다. 반면 메디칼은 공익 목적이 강해 가격 민감도가 낮고, 장비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제노레이는 메디칼을 통한 꾸준한 수익창출과 덴탈장비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제노레이는 설립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445억원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1%, 60.3% 증가한 62억원, 5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덴탈 부문 매출액은 2015년부터 연 평균 29.4%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노레이는 전체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 만큼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노레이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 7500원~2만 5000원으로 총 60만 1942주를 공모한다. 이 중 신주모집은 45만 5418주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메리츠증권증권

신규 비대면계좌 금리 2.99%

메리츠증권증권은 오는 7월 말까지 비대면계좌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담보대출 금리를 2.99%로 낮추고, 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하는 비대면고객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증권의 현행 신용·담보대출이자율이 이용 기간에 따라 평균 7.5%~9.9%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인 일명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 4.52% 보다도 낮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비대면앱(애플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메리츠증권증권 메리츠계좌개설')을 통해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서 신용/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파격적인 2.99% 할인 금리는 이벤트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적용된다. 금리 이벤트는 대출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무료 수수료 혜택은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계좌에서 HTS/MTS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유관기관 수수료 등 제비용을 제외한 매매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김문호 기자